팜유가격 폭등“장기화”

중국 수요급증으로 공급부족 … 94년말 톤당 750달러 육박

유지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팜유의 가격상승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팜유 수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94년 중국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급부족현상을 노정하며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같이 팜유의 가격이 상승하자 대형 거래상들이 투매에 나서는 등 유통상의 문제도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팜유 수입현황 (단위 : M/T,%)

구 분	1991	1992	1993	1994	증감률
팜올레인	39,958	40,399	47,210	50,460	6.9
팜스테아린	65,182	57,081	42,102	38,812	▽7.8
기 타	109,890	107,806	104,254	124,080	19.0
합 계	215,030	205,286	193,566	213,352	10.2

94년12월 현재 팜오일 가격은 FOB기준 톤당 735달러인데, 이는 93년말 500달러대에서 48% 인상된 것으로, 95년 상반기까지는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75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팜유시장은 수시로 변하는 가격으로 인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팜유 판매기업들은 식품·비누 등 연관수요기업들에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팜유 수입현황을 보면, 93년 총 19만 4000여톤으로 92년 20만5000톤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94년에는 21만여톤으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0년대들어 연간 20만톤 내외를 유지, 양적인 변동은 미미한 실정이며 앞으로 10% 이내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식품을 비롯 비누, 기타 공업용 등 전반적인 수요산업이 규모면에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양적인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팜유는 대부분 팜올레인을 비롯해 팜스테아린, 기타 다양한 품질의 오일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며 팜올레인은 대부분 라면을 비롯한 마가린·아이스크림·쇼트닝유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 팜스테아린은 비누를 비롯해 식물성세제·절삭유·윤활유·압연유 등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팜올레인의 경우 국내에서 롯데삼강이 오일을 수입, 연간 7만여톤을 정제가공해 이중 2만5000여톤은 자가소비하며 나머지는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등 식품생산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또 농심은 자체소비를 위해 연간 5만여톤의 팜오일을 수입, 정제해 사용하고 있으며 삼양사,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등도 1~2만여톤의 팜올레인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팜유의 수입은 90%이상 말레이지아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말레이지아는 고온다습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팜의 대표적인 산지로 알려져 있다. 팜유는 팜에서 유지를 분리한 것으로 팜올레인과 팜스테아린의 형태로 추출된다. 이중 팜올레인은 융점이 낮고 분자구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식품용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팜스테아린은 분자가 크고, 융점이 높아 식물성세제를 포함한 공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격에 있어서도 팜올레인은 팜스테아린에 비해 톤당 50~80달러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앞으로 팜유는 현재 대두·옥배유가 700~710달러, 채종유가 76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750달러를 넘어설 경우 일부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큰폭의 가격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팜유시장은 전반적인 공급의 부족과 앞으로 국제적인 수요의 증가로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95년 하반기에는 정체 내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93년 수준의 가격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1/9>